

# MBTI 성격유형과 행정학성적 및 갈등관리의 관계

박영미\*

##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

## 〈요 약〉

이 연구에서는 MBTI를 활용하여 행정학 과목을 수강하는 공공행정학부 학생들의 개인성격을 분석하고, MBTI 성격과 행정학성적 및 갈등관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 특히 행정학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적 및 갈등관리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러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성격유형은 내부의 정신심리 측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BTI 기본 프로파일을 보면, 외향형(E)이 68.0%로 내향형(I)보다 많고, 감각형(S)이 63.3%로 직관형(N)보다 많았으며, 사고형(T)이 55.8%로 감정형(F)보다 약간 많고, 판단형(J)이 63.3%로 인식형(P)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성격유형은 행정학성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즉 정신심리 측면뿐만 아니라 외양태도 측면에서도 성격유형은 행정학성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셋째, 정신심리 측면에서 볼 때, 감각적 사고형(ST)은 경쟁과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고, 감각적 감정형(SF)은 수용과 관련되며, 직관적 감정형(NF)은 협력과 관련되고, 직관적 사고형(NT)은 회피와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양태도 측면에서 볼 때, 외향적 판단형(EJ)은 경쟁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고, 내향적 판단형(IJ)과 내향적 인식형(IP)은 회피에 더 가까우며, 외향적 인식형(EP)은 수용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갈등관리스타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면 자신의 갈등관리스타일을 깨달아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갈등관리전략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MBTI, 성격유형, 학업성적, 갈등관리】

\* 초당대학교 교수(ympark@cdu.ac.kr)

논문접수일(2017.10.26), 수정일(2017.12.23), 게재확정일(2017.12.27)

## I. 서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절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일상생활에서의 갈등관리전략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에 민주화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면 할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갈등발생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갈등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고 있는데, 갈등의 정태적인 측면보다는 갈등의 동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갈등의 역기능보다는 갈등이 해결될 경우의 순기능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용에 의하면, 갈등은 두뇌 구조의 차이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다(한국MBTI연구소, 2009; VanSant, 2003). 성격유형 개념에 의하면 우리의 두뇌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다. 선한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서로 논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빨리 말을 하거나 하여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찡그리게 되는데,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느닷없이 다가오는 많은 갈등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쓸데없는 오해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를 행정학 전공 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연관하여 진행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들은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자신의 성격에 맞는 고유한 학습방식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갈등관리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자신의 갈등관리 스타일에 대한 깨달음을 토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과 갈등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생의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을 진단하고, 성격유형과 행정학 성적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자신만의 학습방법과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학문적 활동에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스타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갈등관리기술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갈등관리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효과성 측면에서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의 개인이 모여 생활하는 조직에서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스타일의 관련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에

서 발생하는 개인 간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행정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 1. MBTI 성격유형

#### 1) 네 가지 선호지표

융은 인간의 심리기능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다양한 대극 쌍이 있다고 보았다. 그 대극 쌍 중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선호성에 의해 다양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심리유형(psychological type)이라 불렀다(융, 1976).<sup>1)</sup> 마이어스(Myers, 1980)는 융에 토대를 두고, 유형이란 우리 마음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핵심적인 네 개의 기본적인 대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고,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라는 성격유형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오늘날 MBTI는 정상적인 성인들을 위한 성격유형 진단도구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MBTI의 선호성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택·심혜숙, 2015; Myers & Myers, 1995). 외향(Extraversion)/내향(Introversion)은 우리 정신에너지의 자연스런 방향(외부세계 혹은 내부세계)과 관련되고, 감각(Sensing)/직관(Intuition)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인 인식과 관련된다. 사고(Thinking)/감정(Feeling)은 우리가 인식한 것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방법과 관련되고, 판단(Judging)/인식(Perceiving)은 외부 세계를 대할 때 선호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첫째,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E)과 내향형(I)으로 분류된다. 외향형(E)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설명과 논리적이며 이론적인 과정을 원한다. 외향형들은 때로 표현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

---

1) 우리는 각각의 대극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의 선천적인 경향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선호성은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것이다. 선호성은 보통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처럼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더 편한 쪽을 사용하게 되고 또 자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현된다.

다. 내향형(I)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또는 이론적인 과정을 원한다. 내향형들은 일반적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 질문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표현한다(김정택·심혜숙, 2015; Myers & Myers, 1995).

둘째, 정보수집차원에서 감각형(S)과 직관형(N)으로 분류된다. 감각형(S)은 순차적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진술한다. 이들은 지시를 하거나 받을 때 단계별로 분명한 계획을 필요로 하며,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모든 자료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여긴다. 직관형(N)은 몇 개의 특별한 장면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직관형은 과정에 대한 지시 없이 원하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필요하다면 이들에게는 주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직관형은 너무 많은 세부사항들에 의해 압도되고 당황스러워 할 수 있다(김정택·심혜숙, 2015; Myers & Myers, 1995).

셋째, 의사결정측면에서 사고형(T)과 감정형(F)으로 분류된다. 사고형(T)은 종종 칭찬하는 말을 하기 전에 비판을 먼저 분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고형은 문제를 듣기 시작하면서 해결하고자 한다. 감정형(F)은 칭찬해주는 표현을 듣기 전에 비판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을 매우 어려워 한다. 감정형은 일단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정서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해결과 연관시키려 한다(김정택·심혜숙, 2015; Myers & Myers, 1995).

넷째,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측면에서 판단형(J)과 인식형(P)으로 분류된다. 판단형(J)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를 이용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리더로서 판단형은 목표하는 결과를 설정하고 나서 그것을 얻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 인식형(P)은 무작위로 쌓아두거나 모아두고 물건이 놓인 자리에 대해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식형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핵심이 될 만한 큰 계획의 테두리 정도만을 정해 둔다(김정택·심혜숙, 2015; Myers & Myers, 1995).

MBTI 성격유형 진단을 위한 척도는 네 가지의 양극단에 있는 선호지표 각각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보다 더 가까운 쪽이 무엇인가를 한 개씩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로 향해 있는 내향형(I)에 더 가깝고, 둘째 정보수집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을 중시하는 직관형(N)이며, 셋째 의사결정 측면에서 논리적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사고형(T)이고, 넷째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가 계획성 있는 판단형(J)에 가깝다면, MBTI 성격유형은 INTJ가 된다.<sup>2)</sup> 네 가지 선호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2) 16가지 MBTI 성격유형에 관한 설명은 김정택·심혜숙(2015)과 Myers & Myers(1995)를 참조하기 바람.

때문에 16가지의 성격유형이 도출된다.

성격유형 측정을 위한 설문은 미국의 CPP(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가 성인용, 중고등 학생용, 어린이용 등 연령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되고 있다. Humanmetrics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성격유형을 진단할 수 있도록 Site를 운영하고 있다.<sup>3)</sup> 국내에서는 한국MBTI연구소가 한국어로 표준화하여 개발한 94문항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2) 정신심리기능

인식 선호성(감각과 직관)과 판단 선호성(사고와 감정)을 결합하면 정신심리기능 측면에서의 감각적 사고형(ST), 감각적 감정형(SF), 직관적 감정형(NF), 그리고 직관적 사고형(NT)의 네 가지 성격유형이 도출된다. 정신심리기능 측면은 학습스타일과 갈등관리 스타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한국MBTI연구소, 2009; Myers & Myers, 1995; VanSant, 2003).

첫째, 감각적 사고형(ST)은 감각의 구체성, 순서, 현실성, 사실성과 사고의 논리성, 분석적인 평가가 조합되어 있다. 이들은 학교의 위계구조에서 현실적인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인식하며 지식과 절차는 보통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갈등을 삶의 일반적인 한 부분으로 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다룬다. 갈등에 직면하여 직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응하며, 가능한 가장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김정택·심혜숙, 2015; 한국MBTI연구소, 2009; Myers & Myers, 1995).

둘째, 감각적 감정형(SF)은 감각의 구체성, 사실성, 체계성, 실용성과 감정의 인간중심적인 평가과정이 결합되어 있다. 이들은 애정을 보이는 교사에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학교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친숙한 가치와 관습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갈등을 불편해하고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본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문제해결과정에 관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정택·심혜숙, 2015; 한국MBTI연구소, 2009; Myers & Myers, 1995).

셋째, 직관적 감정형(NF)은 전체적이고 미래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가진 직관과 인간중심적인 평가과정을 지닌 감정이 결합되어 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리기를 원하며, 인간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애정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 하거나 놀라움을 느낄 수 있다. 우선

3) [www.humanmetrics.com/cgi-win/JTypes2.asp](http://www.humanmetrics.com/cgi-win/JTypes2.asp)

상처를 받고 기분이 침체될 수 있다. 갈등상황보다 개인적 가치나 관계의 유지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며, 가치충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김정택·심혜숙, 2015; 한국MBTI연구소, 2009; Myers & Myers, 1995).

넷째, 직관적 사고형(NT)은 전체적이고 미래가능성을 보는 직관과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사고가 결합되어 있다. 이들은 관념의 세계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며, 추상적이고 지적인 주제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선호한다. 이들은 갈등을 도전과 혁신 그리고 변화의 기회라고 본다. 갈등은 궁극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믿는다. 독립적인 문제해결을 선호하며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개입시킨다(김정택·심혜숙, 2015; 한국MBTI연구소, 2009; Myers & Myers, 1995).

### 3) 외양태도

에너지의 방향(외향과 내향)과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판단과 인식) 선호성을 결합하면, 외향적 판단형(EJ), 외향적 인식형(EP), 내향적 인식형(IP), 그리고 내향적 판단형(IJ)의 네 가지 외양태도 유형이 도출된다. 외양태도 측면은 다른 조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부적에서 관찰되기 쉽고, 학습스타일과 갈등관리 스타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한국MBTI연구소, 2009; VanSant, 2003). 모든 선호성은 신체언어에 영향을 미치지 만,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외향/내향과 판단/인식의 조합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체를 주변의 물리적 공간에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첫째, 외향적 판단형(EJ)은 강의실상황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지식습득에 재빠르다. 의사소통 시에 상대방과 매우 가까이 앉아 있거나 서 있고,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강하게 움직이고, 몸이 앞으로 쏠려있다(김정택·심혜숙, 2015; 한국MBTI연구소, 2009; VanSant, 2003).

둘째, 외향적 인식형(EP)은 강의실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흥미를 보이는 이들이다. 이들은 큰 동작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선호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서거나 앉는 등 자유롭게 움직인다. 눈을 맞추기는 하지만 움직이기 위해 시선을 돌리기도 한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손의 움직임이 커진다(김정택·심혜숙, 2015; 한국MBTI연구소, 2009; VanSant, 2003).

셋째, 내향적 인식형(IP)은 학습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교수자가 도통 속내를 쉽게 알 수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눈 맞춤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 때는 눈을 맞추기도 한다. 손과 몸을 거의 움직

이지 않고, 관계가 매우 친밀하지 않는 한 접촉도 거의 하지 않는다(김정택·심혜숙, 2015; 한국MBTI연구소, 2009; VanSant, 2003).

넷째, 내향적 판단형(IJ)은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서 학습내용을 질서 있게 조직화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기를 선호한다. 상대방과 의사소통 시에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도록 충분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 물리적인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눈 맞춤을 피하거나,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눈을 감기도 한다(김정택·심혜숙, 2015; 한국MBTI연구소, 2009; VanSant, 2003).

## 2. 갈등관리

갈등에 대한 연구는 인간관계론과 행정행태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직 내에서 갈등이란 행동 주체 간의 대립적 또는 적대적 상호작용을 말한다(이종수 외, 2015). 조직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초기의 전통적 견해는 갈등 역기능론으로 갈등은 일종의 악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갈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최근의 현대적 갈등이론에서는 갈등의 긍정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둘러싼 동태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갈등이 건설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갈등의 순기능이 조직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갈등의 역기능은 제거되고 갈등의 순기능은 조장되도록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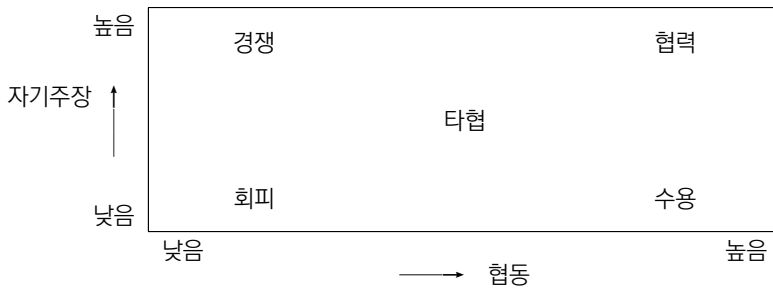
Blake & Mouton(1973)은 개인 간 갈등스타일에 대하여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2차원 모형을 제시하였고, 갈등관리유형을 회피, 강제, 조화, 타협, 문제해결의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Thomas & Kilmann(1974)은 Blake & Mouton(1973)의 모형을 재해석하여, 자기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만족시키는 것과 상대방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는 것을 2개의 축으로 하여, 회피(Avoiding), 수용(Accommodating), 타협(Compromising), 협력(Collaborating), 경쟁(Competing)의 다섯 가지로 갈등관리스타일을 분류하였다. Rahim(1983)은 Thomas & Kilmann(1974)의 모형에 토대를 두고,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2차원적 모형을 구성하였고, 통합(Integrating), 배려(Obliging), 지배(Dominating), 회피(Avoiding), 타협(Compromising)의 다섯 가지 갈등관리스타일을 제시하였다. Rahim(1983)의 통합(Integrating)은 Thomas & Kilmann(1974)의 협력(Collaborating)과

4) 갈등은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갈등관리의 주된 관심은 궁극적으로 이로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해로운 영향력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유사하고, Rahim의 배려(Obliging)는 Thomas & Kilmann의 수용(Accommodating)과 유사하며, Rahim의 지배(Dominating)는 Thomas & Kilmann의 경쟁(Competing)과 유사하다.

Thomas & Kilmann의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갈등관리와 관련된 행동은 자기 자신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타인의 흥미와 관심의 두 가지 축으로 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 다섯 가지의 갈등관리스타일로 분류된다. 즉 자기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두는 자기주장(Assertiveness)과 타인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두는 협동(Cooperativeness) 가운데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더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쟁(competing), 수용(Accommodating), 협력(Collaborating), 타협(Compromising), 그리고 회피(Avoiding) 스타일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Thomas(2002)에 따르면 어떤 갈등관리스타일도 좋거나 나쁜 것은 없고, 단지 각 스타일은 어떤 상황에는 적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부적합하거나 덜 효과적일 수 있다(한국MBTI연구소, 2009; Thomas, 2002).

〈그림 1〉 갈등관리스타일



다섯 가지 갈등관리 스타일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한국MBTI연구소, 2009; Thomas & Kilmann, 1974; Thomas, 2002).

첫째, 경쟁(Competing)은 개인의 이익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타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에는 노력을 덜 기울인다. 경쟁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고 패배하기보다는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비상시에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적합하다.

둘째, 수용(Accommodating)은 타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갈등상황에서 이기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방법은 자신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 혹은 조화를 이루고자



할 때 또는 상대방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적합하다.

셋째, 협력(Collaborating)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찾는 행동이다. 협력을 갈등관리스타일로 취하는 이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방법은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넷째, 타협(Compromising)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조금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인 욕구를 서로 교환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 역시 존중함으로써(give and take) 점차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해당 상황이 자신에게 조금 중요한 경우이거나 협력과정을 거칠 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치 않을 때 사용될 수 있다.

다섯째, 회피(Avoiding)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 가운데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은 상호작용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방법은 관련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진정해야 할 때 적합하다.

갈등관리유형에 관한 이론적 틀과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실증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Thomas & Kilmann(1975)은 갈등관리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 Thomas-Kilmann MODE(Management-of-Differences Exercise)<sup>5)</sup>를 개발하였다. Rahim(1983)은 Thomas & Kilmann의 MODE를 수정하여 ROCI-II(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sup>6)</sup>를 개발하였다. 갈등관리유형의 진단에 관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Thomas-Kilmann MODE와 Rahim의 ROCI-II이 사용되고 있다.

### 3. 성격유형과 학업성적의 관계

대학교육 환경에서는 직관형(N)과 사고형(T)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yers and Myers, 1995). 대체로 직관형(N)은 문장의 밑에 깔려있는 숨은 의미를 잘

5) Thomas & Kilmann의 갈등관리 측정도구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을 쌍으로 제시하여 선호도를 강제 선택하는 방식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경쟁)‘대체로 목적달성을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간다’와 (회피)‘불편한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한다’처럼, 한 문항에 두 개의 갈등관리유형이 쌍으로 제시되어 있고, 응답자는 보통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행하는 방법을 가장 근접하게 묘사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6) Rahim(1983)의 갈등관리 측정도구는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문항에 한 가지 갈등관리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응답자는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악하고, 개념과 개념의 추상화에 뛰어나며, 사고형(T)은 치밀하고 논리적인 인과관계 분석에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격유형과 학업성적에 관한 최근의 국내 실증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정현경 외(2007)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성격유형 자체가 간호학 성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김소희·한정선(2007)도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성격유형, 자기주도성,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규명 연구에서 성격유형은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안병근(2006)은 성격유형이 대학생의 경제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외향형(E)의 경제학 성적이 내향형(I)의 경제학 성적보다 더 높고, 감각형(S)의 경제학 성적이 직관형(N)의 경제학 성적보다 더 높았다고 하였다. 김선 외(2005)는 의과대학생의 경우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지영 외(2001)도 그들의 연구에서 개인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유형이 다르고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판단형(J)의 학업성취도가 인식형(P)의 학업성취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았다.

〈표 1〉 성격유형과 학업성적에 관한 국내 실증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결과
정현경 외 (2007)	대학생(간호학)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의 관계	성격유형은 학업성취도와 직접적 상관성 없음
김소희·한정선 (2007)	대학생(사이버)	성격유형,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성격유형은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없음
안병근 (2006)	대학생(경제학)	성격유형이 대학생의 경제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외향(E), 감각(S) 유형이 경제학 성적과 유의
김선 외 (2005)	대학생(의과대)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음
임지영 외 (2001)	대학생(간호학)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판단(J) 유형이 학업성취도와 긍정적 관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격유형과 학업성적의 관계에서는 국내 연구결과가 상반되고 있다. 즉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되는 실증연구도 있다. 판단컨대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학업성적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 4.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의 관계

조직에서 개인간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갈등 당사자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차에 따라 갈등관리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hanin & Schneer, 1984; 이상엽·김병식, 1996). Kilmann & Thomas(1975)는 외향형(E)이 내향형(I)에 비하여 협력적 스타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Chanin & Schneer(1984)는 그의 연구에서 감수성이 강한 감정형(F)은 타협적 스타일과 수용적 스타일을 통해 갈등을 다루고자 하고, 논리적인 사고형(T)은 경쟁 스타일과 협력 스타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표 2〉), 백은영(2004)은 Rahim(1983)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유치원 교사의 MBTI 성격특성과 갈등관리특성의 관계를 연구한 그의 연구에서, 직관형(N)은 감각형(S)에 비하여 타협적 갈등관리유형을 구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으며, 감정형(F)은 사고형(T)에 비하여 수용 유형을 구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았다.

〈표 2〉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유형에 관한 국내 실증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내용	측정도구	연구결과
백은영 (2004)	성격특성과 갈등관리특성의 관계	Rahim의 ROCI	직관형(N)은 타협과 유의 감정형(F)은 수용과 유의
김명준 (1998)	조직에서 개인적 갈등관리를 위한 측정	Thomas-Kilmann MODE	사고형(T)은 경쟁, 타협과 유의 감정형(F)은 수용과 유의
이상엽·김병식 (1996)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유형의 관계	Rahim의 ROCI	외향형(E)은 협력, 감각형(S)은 경쟁과 타협, 사고형(T)은 경쟁과 협력, 판단형(J)은 타협과 협력 내향형(I)과 인식형(P)은 회피와 수용, 직관형(N)은 수용, 감정형(F)은 회피와 관련 감각적 감정형(SF)과 직관적 감정형(NF)은 수용, 직관적 사고형(NT)은 타협과 관련

김명준(1998)은 Thomas-Kilmann(1974)의 설문지를 토대로 한 그의 연구에서, 사고형(T)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밀고 나가거나 일부를 포기하며, 따라서 전략적으로 경쟁이나 타협을 갈등관리유형으로 선택하며, 감정형(F)은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감정이 주요 특징이므로 관계상의 조화를 유

지하는데 감정적 투자를 많이 하며, 갈등관리유형으로 수용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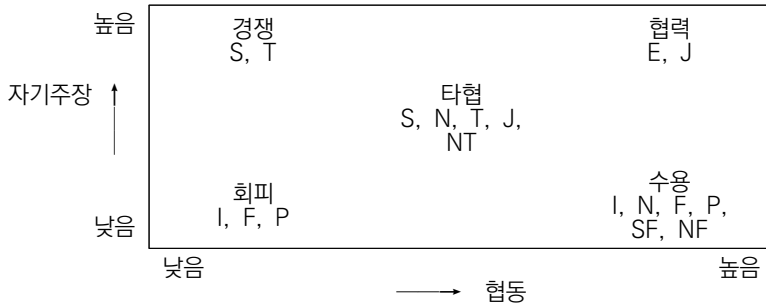
이상엽·김병식(1996)은 그의 연구에서 Rahim(1983)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MBTI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유형 간의 교차분석표를 작성하였다(〈표 3〉).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갈등상황에서 한 가지 갈등관리유형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의 갈등관리유형을 혼합하여 자신만의 갈등관리전략을 사용한다. 표의 각 셀에서 30%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호지표로 볼 때, 외향형(E)은 갈등 상황에 정면으로 대면하여 협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내향형(I)은 회피와 수용을 선택하기 쉽고, 감각형(S)은 경쟁과 타협, 직관형(N)은 수용, 사고형(T)은 경쟁과 협력, 감정형(F)은 회피, 판단형(J)은 타협과 협력, 그리고 인식형(P)은 수용과 회피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심리기능 측면에서 볼 때, 감각적 감정형(SF)과 직관적 감정형(NF)은 수용 유형과 관련이 있고, 직관적 사고형(NT)은 타협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유형의 교차분석표

	협력	회피	수용	경쟁	타협
E	47.6%	4.8%	3.6%	28.5%	15.4%
I	3.2%	41.2%	37.3%	3.2%	15.1%
S	17.0%	4.8%	2.7%	41.5%	34.0%
N	11.0%	25.4%	46.0%	7.9%	9.5%
T	36.0%	4.0%	4.8%	43.2%	12.0%
F	10.6%	35.3%	29.4%	7.1%	17.6%
J	37.3%	3.2%	1.6%	16.0%	42.1%
P	4.1%	35.7%	40.5%	6.0%	14.3%
ST	29.3%	9.6%	15.9%	24.2%	22.0%
SF	6.3%	14.1%	39.0%	10.9%	29.6%
NT	23.8%	9.5%	11.9%	14.3%	40.5%
NF	9.5%	19.0%	42.8%	4.8%	23.8%

자료: 이상엽·김병식(1996: 76) 재구성

〈그림 2〉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유형에 관한 국내 실증연구 정리



위의 국내 선행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유형의 관계를 Thomas & Kilmann의 격자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갈등은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에 일어날 수 있고, 특별히 사회에 진출해 본격적으로 조직생활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갈등관리 기술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성격유형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깨닫고, 평소 은연중에 사용하는 자신의 갈등관리유형이 어떤 것인가를 올바르게 인지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그때그때 자신의 대응행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토대를 둔 갈등관리전략은 실제의 갈등상황에서 수월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성격유형에 따라 강점은 더욱 더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강하는 방향으로 갈등관리 훈련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갈등관리의 핵심은 상황에 맞는 갈등관리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이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C대학의 공공행정학부에서 행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156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 1학기에 1차적으로 MBTI 성격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9부는 제외하고 147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응답자 가운데 남학생은 110명(74.8%)이고, 여학생은 37명(25.2%)으로, 남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차적으로 이 가운데

해외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10명의 학생들의 모임에 2017년 6월 한 번 직접 참여하여 이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이후 세 번의 추가적인 모임이 있었고 이 때의 대화내용은 조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3차적으로 2017년 2학기 '함께배움' 프로그램을 5명의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연구자가 100% 직접 참여하여 이들의 대화와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함께배움' 프로그램은 한 학기에 5번 모임이 있었고, 매 모임마다 2시간 이상동안 진행되었다.

## 2. 측정도구

첫째, MBTI 성격유형은 Humanmetrics에서 개발한 64문항의 설문을 사용하였다.<sup>7)</sup> 설문은 활발하며 사교적 활동을 선호하는 외향형(E)인지 혹은 여가시간을 혼자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보내기를 선호하는 내향형(I)인지를 묻는 16문항, 선례와 직접 경험을 중요시하는 감각형(S)인지 혹은 미래의 발전가능성과 사물의 숨은 의미를 중요시하는 직관형(N)인지를 묻는 16문항, 논리적 인과관계에 토대를 둔 분석을 선호하는 사고형(T)인지 혹은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감정형(F)인지를 묻는 16문항,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를 선호하는 판단형(J)인지 혹은 즉흥적이고 융통성 있는 결정을 선호하는 인식형(P)인지를 묻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4문항 각각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YES)' - '그렇다(yes)' - '불분명(uncertain)' - '아니다(no)' - '매우 아니다(NO)' 가운데에서 평상시의 자신과 가까운 곳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의 설문 응답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로 제시한 64문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Humanmetrics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어로 제시된 문항에 응답하면 16가지 MBTI 성격유형이 알파벳 네 문자로 도출되고 각 선호성의 강도도 %로 함께 제공된다.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선호지표 가운데 하나씩 선택된 알파벳 네 문자를 활용하였다.

〈표 4〉 MBTI 성격유형 측정을 위한 문항

1. 나는 약속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2. 나는 활동적이고 진행이 빠른 일에 가담하기를 좋아한다
3. 나는 아는 사람을 폭넓게 두는 것을 즐긴다
4. 나는 TV드라마를 시청할 때 내가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5. 전화벨이나 예기치 않은 질문 같이 갑작스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다
6. 나는 세상이 자비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느낀다
7.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한다
8. 기존의 규칙들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멋진 결과를 막는 것 같다

7) [www.humanmetrics.com/cgi-win/JTypes2.asp](http://www.humanmetrics.com/cgi-win/JTypes2.asp)

9. 나는 좀처럼 자극을 받지 않는다
10. 결정을 할 때 나는 상황분석보다 나의 감정에 더 의존한다
11. 나는 종종 인간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생각한다
12. 나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는다
13. 나는 종종 현상과 사물의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14. 나는 다양한 선택을 놓고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즉시 행동에 옮기는 쪽을 선호한다
15. 나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신뢰한다
16. 나는 신중히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17. 나는 사람들과 사교적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파티에 참석하고, 쇼핑을 하는 데 여가 시간을 보낸다
18. 나는 보통 나의 행동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운다
19. 나의 행동은 감동의 영향을 자주 받는다
20. 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서먹서먹해 하고 거리를 둔다
21. 나는 나의 시간 순간순간을 훌륭한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22. 나는 종종 삶의 복잡성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23. 나는 사교적인 활동을 오래 한 뒤에는 멀찍이 물러나 혼자 있을 필요성을 느낀다
24. 나는 종종 급히 일을 처리한다
25. 나는 특별한 일들의 뒤에 깔려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쉽게 본다
26. 나는 나의 감정과 감동을 자주, 쉽게 표현한다
27. 나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28. 나는 이론적인 책들을 읽어야 할 때면 지루해진다
29.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편이다
30. 나는 자비보다는 정의를 더 소중하게 평가한다
31. 나는 새 직장에서도 사교적 활동에 신속히 뛰어든다
32. 나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기분을 느낀다
33. 나는 이론적인 대안들보다는 나의 경험을 더 믿는 편이다
34. 대체로 나는 분명하고 자세한 계획이 있을 때에만 일을 진행한다
35. 나는 다른 사람의 근심에 쉽게 공감한다
36. 종종 나는 파티에 가는 것보다 책임기를 선호한다
3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이벤트의 중심에 서기를 즐긴다
38. 나는 낯익은 접근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실험하는 쪽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39.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진한 감동을 받는다
40. 테드라인(마감시간)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41. 나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기를 더 좋아한다
42. 나에게서는 책이나 매뉴얼보다는 직접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더 쉽다
43. 나는 거의 모든 것이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4. 나에게서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놀라움보다는 놀라움이 없는 것이 더 좋다
45. 나는 물건들을 정돈하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
46. 나는 군중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47. 나는 나의 욕망과 유혹을 잘 다스린다
48. 나는 새로운 이론적 원칙을 쉽게 이해한다
49. 나는 방에 들어가면 언제나 방 한가운데보다 귀퉁이 가까운 곳을 찾는다
50. 어떤 문제를 풀 때 나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보다는 익숙한 방법을 따른다
51. 모험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52. 어떤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현 상황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사건들의 가능한 결과에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
53. 나는 과학적 접근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54. 나는 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55.나의 결정은 신중한 계획보다는 그 순간의 감정에 바탕을 둔다
- 56.나는 여가 시간을 혼자서 아니면 가족적인 차분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보내기를 더 좋아한다
- 57.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
- 58.나는 격한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 59.나는 언제나 기회를 찾고 있다
- 60.대체로, 미래 계획보다는 현재의 일이 나를 더 걱정하게 만든다
- 61.나는 사교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쉽다
- 62.나는 버릇에 일관성을 보인다
- 63.나는 동정심을 요구하는 일에 기꺼이 끼여든다
- 64.나는 사태가 발전해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쉽게 파악한다

---

자료: [www.humanmetrics.com/cgi-win/JTypes2.asp](http://www.humanmetrics.com/cgi-win/JTypes2.asp)

둘째, 학업성취도는 2017년도 1학기에 공공행정학부에서 행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측정하였다. 학점 A+는 4.5점, A0는 4.0점, 학점 B+는 3.5점, B0는 3.0점, 학점 C+는 2.5점, 그리고 C0는 2.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갈등관리 스타일은 2017년 6월 해외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제안을 작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활동상황과 2017년 2학기 ‘함께배움’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참여관찰을 통해 대화를 발췌하고, Thomas & Kilmann(1974)에 의해 개발된 갈등관리유형에 근거하여 경쟁, 수용, 협력, 타협, 그리고 회피의 다섯 가지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어서, 모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편의에 의하여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대화에 초점을 두고 발췌하였다.

### 3. 연구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첫째, MBTI 성격유형과 행정학성적의 관계를 분석한다. MBTI 성격유형은 정신심리기능 측면과 외양태도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행정학성적은 2017년도 1학기에 수강한 행정학 관련 과목의 학점으로 측정한다.

둘째, MBTI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의 관계를 분석한다. MBTI 성격유형은 정신심리기능 측면과 외양태도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갈등관리는 학생들의 활동장면에 직접 또는 간접적 참여관찰을 통하여, Thomas(2002)의 경쟁, 수용, 협력, 타협, 그리고 회피의 다섯 가지 갈등관리스타일로 구분한다.



〈그림 3〉 분석틀



## IV. 분석결과

### 1. MBTI 성격유형의 기본 프로파일

MBTI 성격유형의 기본 프로파일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첫째, MBTI의 네 가지 선호성에서 볼 때, 외향형은 68.0%로 내향형(32.0%)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감각형이 63.3%로 직관(36.7%)보다 많고, 사고형이 55.8%로 감정형(44.2%)보다 더 많았으며, 판단형이 63.3%로 인식형(36.7%)보다 더 많았다. 즉 외향형(E)-감각형(S)-사고형(T)-판단형(J)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 MBTI 성격유형 프로파일

	감각(S) 93 (63.3%)		직관(N) 54 (36.7%)		외양태도
	ISTJ 12 (8.2%)	ISFJ 9 (6.1%)	INFJ 2 (1.4%)	INTJ 6 (4.1%)	
내향(I) 47 (32.0%)	ISTP 10 (6.8%)	ISFP 2 (1.4%)	INFP 4 (2.7%)	INTP 2 (1.4%)	IJ 29 (19.7%)
					IP 18 (12.2%)
외향(E) 100 (68.0%)	ESTP 11 (7.5%)	ESFP 14 (9.5%)	ENFP 4 (2.7%)	ENTP 7 (4.8%)	EP 36 (24.5%)
	ESTJ 19 (12.9%)	ESFJ 16 (10.9%)	ENFJ 14 (9.5%)	ENTJ 15 (10.2%)	EJ 64 (43.5%)
정신심리 기능	ST 52 (35.4%)	SF 41 (27.9%)	NF 24 (16.3%)	NT 30 (20.4%)	합계 147 (100%)

둘째, 정신심리기능으로 유형화하면, 감각적 사고형(ST)이 3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감각적 감정형(SF)이 27.9%, 직관적 사고형(NT)이 20.4%, 그리고 직관적 감정형(NF)이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양태도로 유형화하면, 외향적 판단형(EJ)이 4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외향적 인식형(EP)이 24.5%, 내향적 판단형이 19.7%, 그리고 내향적 인식형(IP)이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성격유형과 행정학 성적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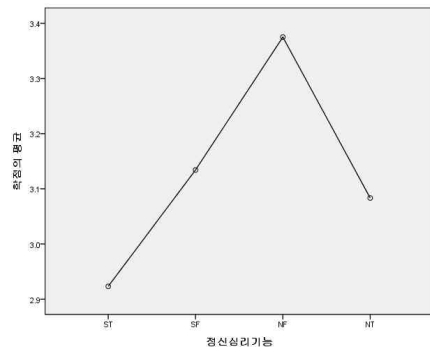
첫째, 내부 정신심리기능 측면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행정학성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F=2.076, p=.106$ )으로 나타났다(〈표 6〉과 〈그림 4〉). 선행 연구결과에서 성격유형과 학업성적의 관계는 유의하게도 나타나고 유의하지 않게도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직관적 감정형(NF)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로 가장 적지만 성적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8)</sup> 그리고 감각적 사고형(ST) 집단의 행정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박영미, 2016)에서 행정공무원들의 집단 가운데 감각적 사고형(ST)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감각적 사고형(ST) 집단의 행정학 성적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감각적 사고형(ST) 집단의 행정학 성적이 오히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유의미한 해석을 위해서 앞으로 추후 실증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표 6〉 정신심리기능별 행정학 성적

정신심리기능	MEAN (STD)
감각적 사고형(ST)	2.923 (.682)
감각적 감정형(SF)	3.134 (.698)
직관적 감정형(NF)	3.375 (.824)
직관적 사고형(NT)	3.083 (.852)

$F=2.076, p=.106$

〈그림 4〉 정신심리기능과 행정학성적



둘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외부로 표현되어지는 외양태도 측면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행정학성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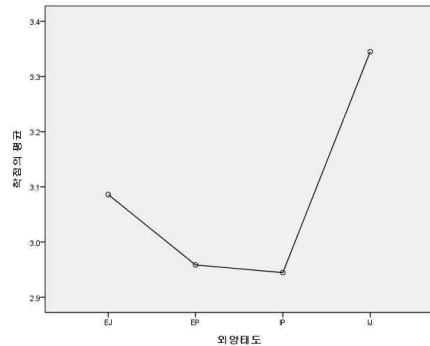
8) Myers & Myers(1995)에 의하면 직관적 사고형(NT)의 학업성적이 높다고 주장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 $F=1.712, p=.167$ )으로 나타났다(표 7)과 <그림 5>. 참고로 내향적 판단형(IJ) 집단의 성적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인식형(EP와 IP) 집단의 행정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외양태도별 행정학 성적

외양태도	MEAN (STD)
외향적 판단형(EJ)	3.086 (.800)
외향적 인식형(EP)	2.958 (.614)
내향적 인식형(IP)	2.944 (.889)
내향적 판단형(IJ)	3.345 (.696)
$F=1.712, p=.167$	

〈그림 5〉 외양태도와 행정학성적



셋째, 추가로 교수자의 성격유형은 학습자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반대로 교수자의 성격유형은 학습자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안병근, 2006).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교수자의 성격유형이 학습자의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9)

### 3.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의 관계

#### 1) 정신심리기능과 갈등관리

정신심리기능과 갈등관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대화를 관찰하였다. 2017년 6월, 10명의 공공행정학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여름방학동안 13박 14일 해외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1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9) 참고로 연구자의 성격유형은 INTJ이다.

10)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현지에서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11) 10명의 학생들은 이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들 147명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다. 이름은 개인정보보

성탄(ST) : 나는 독서토론에서 다룬 「로마인 이야기」의 본 고장인 이탈리아를 반드시 스케줄에 넣어야 한다고 봐. 무엇보다도 로마의 바티칸 미술관과 유명한 유적지를 관광하도록 하자. 중요하고 우리가 꼭 봐야 할 내용들을 위치별로 체크해서 순서를 정해야 해.

수희(SF) : 그래, 성탄이 말대로 로마는 볼거리들이 많을 거야. 날씨는 우리나라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인터넷에서 미리 확인하고 옷을 준비하자. 이탈리아의 유명 맛집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어.

남혜(NF) : 그렇지. 유럽은 인간의 작품들이 곳곳에 즐비해 있는 곳이야. 이왕이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코스에 넣는 것이 어때? 벌써부터 나는 아주 흥분돼.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될까? 미리 기본 인사말이나 간단한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

남진(NT) : 나는 이탈리아도 좋고, 프랑스를 코스에 넣는 것도 좋아. 특별히 로마시대에 완성된 도로와 다리의 흔적을 볼 수 있다면 좋겠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모두 국가경찰제도의 역사가 깊은 곳이야. 특히 그곳은 우리와 달리 군인경찰도 있고, 또 자치경찰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어.

성탄(ST) : 프랑스를 스케줄에 넣으면, 로마와 이탈리아는 자세히 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동하는 데에만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비용은?

수희(SF) : 성탄이 말대로 시간도 문제이고 비용도 문제야.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또 유럽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남혜 말대로 프랑스도 갔다 오자.

남혜(NF) :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잘 짜면 로마, 이탈리아와 함께 프랑스도 다녀올 수 있을 거야. 이동거리를 내가 지도로 미리 확인해 두지.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남진(NT) :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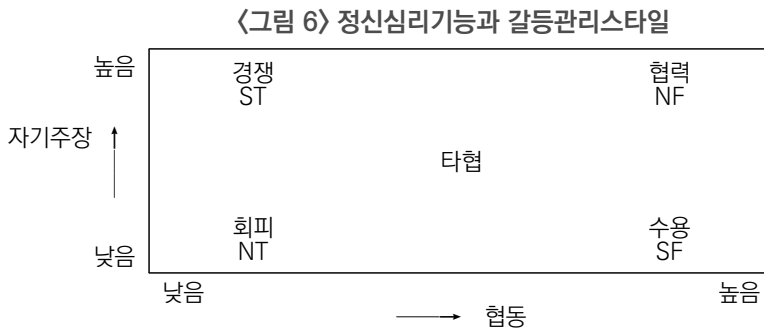
위의 대화에서 보듯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유형이 미치는 영향들이 드러나고 있다. 감각적 사고형(ST)인 성탄은 바티칸 미술관과 유적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감각적 감정형(SF)인 수희는 옷, 맛집 등 사람과 직접 관련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성탄과 남혜 두 사람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직관적 감정형(NF)인 남혜는 여행가기 전부터 미리 흥분된 감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준비에 매우 협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관적 사고형(NT)인 남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발 옆으로 뻗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

---

호를 위하여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지원을 받는 팀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7월 이탈리아(로마, 피렌체, 밀라노)와 프랑스(파리)를 방문하여 그곳의 경찰기관과 법원을 탐방하고, 해외 선진 경호·보안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왔다.

신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신심리기능과 갈등관리 스타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즉 감각적 사고형(ST)은 경쟁 스타일에 보다 더 가깝고, 감각적 감정형(SF)은 수용 스타일에 더 가까우며, 직관적 감정형(NF)은 협력 스타일에 더 가깝고, 직관적 사고형(NT)은 회피 스타일에 보다 더 가까운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2) 외양태도와 갈등관리

외양태도와 갈등관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활동에 직접 함께 참여하면서 성격유형이 갈등관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은 2017년 2학기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하는 ‘함께배움’이라는 프로그램<sup>12)</sup>에서 5명의 공공행정학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보고서작성을 위해 토론하는 대화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sup>13)</sup>

은성(EJ) : 와아. 4차 산업혁명은... 정보사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클라우드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해. 제1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수력과 증기기관을 사용해 생산의 기계화로 효율성을 높였고, 제2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전기를 사용해 생산의 대량화를 이룩했어. 제3차 산업혁

12) ‘함께배움’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 상호간의 무수한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및 공공이익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사색’할 수 있도록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 학기에 최소한 2시간 이상씩 최소 5번에 걸쳐 미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최소한 5번의 모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3) 5명의 학생들은 이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들 147명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다.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다.

명시대는 정보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 생산의 자동화를 이룩했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이제 막 우리 앞으로 다가온 시대로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초연결, 융복합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다른 팀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아주 창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그 외 두 권정도 더 추가해서 참고하기로 하자. 보고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먼저 각자의 역할분담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나혜(IP)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해. 인공지능이라... 알파고처럼 특수한 전문분야에 컴퓨터가 사용된다는 말이지. 작년에 해외글로벌챌린지 프로그램으로 '괴테하우스'에 갔더니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스마트 디바이스가 하고 있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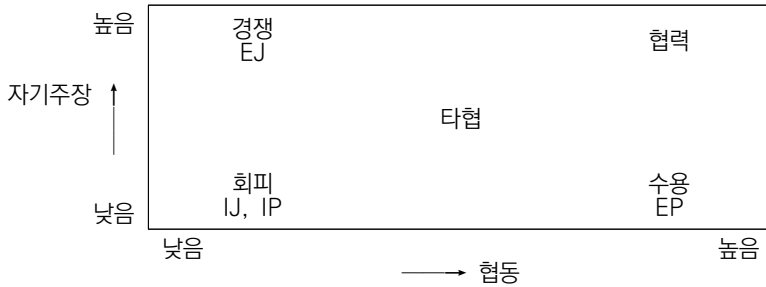
나성(IJ) : 음... 멀지 않아 수년 내에 직업세계가 재편되겠군. 사람경찰이 해야 하는 일과 AI경찰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어.

은혜(EP) :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융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아?. 은성아, 초연결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지 않아? SNS처럼 개인과 개인이 사이버 상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까지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어때? 융복합은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란 것이지? 융복합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을 건물과 거리 곳곳의 센서와 연결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음침한 곳에서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어.

위의 대화 일부분에서 보듯이,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유형이 미치는 영향들이 드러나고 있다. 외향적 판단형(EJ)인 은성은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자신의 입장을 많은 언어를 통해 장시간 표현하며 토론을 자신의 주장대로 이끌고자 한다. 내향적 인식형(IP)인 나혜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지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 것으로 비춰진다. 내향적 판단형(IJ)인 나성은 신체와 단어사용을 자제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토론을 끝맺음하고 있다. 외향적 인식형(EP)인 은혜는 보고서작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의 제스처와 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결과들을 토대로 외양태도와 갈등관리 스타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즉 외향적 판단형(EJ)은 경쟁 스타일에 보다 더 가깝고, 외향적 인식형(EP)은 수용 스타일에 더 가까우며, 내향적 판단형(IJ)과 내향적 인식형(IP)은 회피 스타일에 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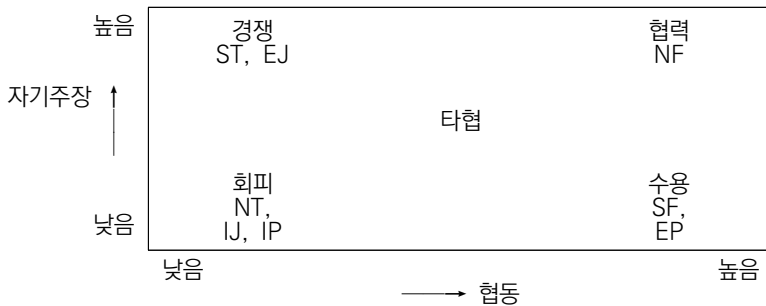
〈그림 7〉 외양태도와 갈등관리스타일



### 3)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의 관계 요약

이 연구에서는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신심리기능 및 외양태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갈등관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정신심리기능 측면은 MBTI 선호성의 내부 정신작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외양태도 측면은 MBTI 선호성 지표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외부로 표현되어 관찰이 비교적 쉽게 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림 8〉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스타일



이 연구의 결과 작성된 〈그림 8〉을,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한 〈그림 2〉와 비교하여 보면,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감각적 감정형(SF)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수용 스타일을 나타내었다. 감각적 감정형(SF)은 친절하고 온유한 유형이고 주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볼 줄 아는 유형이어서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것으로 보아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갈등관리전략을 훈련시킬 때에 이들에게는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

면서도 자기의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자기주장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감각적 사고형(ST)은 경쟁과, 그리고 내향적 인식형(IP)은 회피 스타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는, 비록 선행연구에서는 지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감각적 사고형(ST)에게는 완승보다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현실성 있게 강구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내향적 인식형(IP)은 갈등상황을 본질적으로 불편해하고 의사결정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현실이라는 투쟁판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필요한 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겠다.

셋째, 직관적 감정형(NF)은 이 연구에서는 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수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직관적 사고형(NT)는 이 연구에서는 회피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타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 부분은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

넷째, 학생들의 활동상황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참여를 통해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성격유형과 갈등관리 스타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해석상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시도했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다 의미 있는 분석과 해석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V. 결론 및 논의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는 대학생의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잘 습득하고, 갈등관리 기술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스타일과 갈등관리스타일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학습전략과 갈등관리전략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은 구체적이고도 유용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MBTI를 활용하여 행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공공행정학부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분석하고, 성격유형과 행정학성적 및 갈등관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BTI 기본 프로파일을



보면, 외향(E) 유형이 68.0%로 내향(I) 유형보다 많고, 감각(S) 유형이 63.3%로 직관(N) 유형보다 많았으며, 사고(T) 유형이 55.8%로 감정(F) 유형보다 약간 많고, 판단(J) 유형이 63.3%로 인식(P) 유형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이 연구에서 행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격은 외향(E)-감각(S)-사고(T)-판단(J) 유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공무원집단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박영미, 2016). ESTJ 유형은 계층제적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기업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조직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며 대체로 조직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유형이다.

둘째, 성격유형은 행정학성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즉 정신심리 측면뿐만 아니라 외양태도 측면에서도 성격유형은 행정학성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보면(김정택·심혜숙, 2002), 행정학과 같은 실용학문이면서 조직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감각적 사고형(ST)과 외향적 판단형(EJ)이 성적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외향형(E), 사고형(T), 그리고 판단형(J)이 성적과 긍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행정학 과목과 어느 정도 적성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격유형들이 실제 학습에서 제대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또 한편에서는 성격유형 상으로 볼 때 어느 유형도 자신의 학습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난 교수방법이나 과제가 주어지지 않아, 학습상황에서 크게 소외되거나 피해보는 유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셋째,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스타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신심리 측면에서 볼 때, 감각적 사고(ST) 유형은 경쟁(Competing) 스타일과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고, 감각적 감정(SF) 유형은 수용(Accommodating) 스타일과 관련되며, 직관적 감정(NF) 유형은 협력(Collaborating) 스타일과 관련되고, 직관적 사고(NT) 유형은 회피(Avoiding) 스타일과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양태도 측면에서 볼 때, 외향적 판단(EJ) 유형은 경쟁(Competing) 스타일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고, 내향적 판단(IJ) 유형과 내향적 인식(IP) 유형은 회피(Avoiding) 스타일에 더 가까우며, 외향적 인식(EP) 유형은 수용(Accommodating) 스타일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면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개인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면 자신의 갈등관리스타일을 깨달아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갈등관리전략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행정학의 조직관리와 인사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첫째, 조직 내 업무배치 시에 조직구성원의 성격유형에 맞는 업무를 할당하거나, 업무의 성격에 따

라 비슷한 성격유형끼리 혹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성격유형으로 팀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생산성 및 조직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조직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구성원들의 성격유형에 관한 정보는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리더십스타일을 발휘하는데 유용한 전략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직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성격유형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으면, 갈등을 포함하여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기성숙과 자기발전의 건설적 방향으로 유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 개인의 성숙과 발전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발전 및 성숙, 그리고 조직문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전달로 이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이 분야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일반화시켜 해석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는 주의 깊은 관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수만을 대상으로 특정사례를 통해 참여 관찰이라는 질적 연구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대표성 확보에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자기 자신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충분히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만을 토대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에 의하여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선·김주현·허예라. (2005). 의과대학생 성격과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교육방법. 「한국의학교육」, 17(2): 107-119.
- 김소희·한정선. (2007).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성격유형, 자기주도성,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2): 79-106.
- 김명준. (1998). 「조직에 있어서의 개인적 갈등관리를 위한 측정적 접근」.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심혜숙. (1991). 「MBTI 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심혜숙. (2015). 「서로 다른 천부적 재능들」. 어세스타.
- 박영미. (2016). MBTI에 의한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분석. 「행정논총」, 54(4): 239-263.
- 백은영. (2004). 「유치원 교사의 성격특성과 갈등관리특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 안광일. (1994). 「정부갈등관리론」. 대명출판사.
- 안병근. (2006). 성격유형이 대학생의 경제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경제교육연구」, 13(2): 137-158.
- 이상엽·김병식. (1996). 성격유형과 갈등관리유형과의 관계를 통한 부서의 효율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30(3): 71-88.
- 이종수·윤영진·곽채기·이재원 외. (2015).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임지영·유일영·오순남. (2001).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1(5): 835-845.
- 심혜숙. (2009). 「효과적 교수 효과적 학습」. 어세스타.
- 정현경·김명수·유연자·김수옥·원대영. (2007).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성. 「간호행정학회지」, 13(4): 516-525.
- 한국MBTI연구소. (2009). 「MBTI와 갈등관리」. 어세스타.
- Argyris, C. (1957). Some Problems in Conceptualizing Organizational Climate: A Case Study of a Ban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 501-520.
- Blake, R. R. & Mouton, J. S. (1973). *The Fifth Achievement in Conflict Resolution through Communic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 Chanin, M. N. & Schneer, J. A. (198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ngian Personality Dimensions and Conflict-handling Behavior. *Human Relations*, 37(10): 863-879.
- Davis, K. & Newstrom, J. W. (1985). *Human Behavior at Work: Organizational Behavior*. McGraw-Hill.
- Fairhurst, A. M. & Fairhurst, L. L. (1995). *Effective Teaching Effective Learning*. Davis-Black Publishing.
- Jones, R. E. & White, C. S. (1985).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Task Effectiveness. *Group & Organization Studies*, 10: 152-167.
- Jung, C. G. (1921/1976). *Psychological Types*. In *Collected Works*, 6. Translated by R. F. C. Hul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lmann, R. H. & Thomas, K. W. (1975). Interpersonal Conflict-handling Behavior as Reflections of Jungian Personality Dimensions. *Psychological Reports*, 37: 971-980.
- Mills, J., Robey, D., & Smity, L. (1985). Conflict-handling and Personality Dimensions of Project-management personnel. *Psychological Reports*, 57: 1135-1143.
- Myers, I. S. (1974). *Relevance of Type to Medical Educ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Myers, I. B. & Myers, P. B. (1995). *Gifts Differing*.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 Rahim, M. A. (1985). A Strategy for Managing Conflict in Complex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84: 13-20.
- Steers, R. M. & Black, J. S. (1994). *Organizational Behavior*.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 Thomas, K. W. (2002). *Introduction to Conflict Managemen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Thomas, K. W. & Kilmann, R. H. (1974). *Thomas-Ki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 New York: XICOM, Tuxedo.
- VanSant, S. S. (2003). *Wired for Conflict: the Role of Personality in Resolving Differences*. Gainesville, FL: Center for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ype, Inc.
- Wright, B. E. & Pandey, S. K. (2011). Public Organization and Mission Valence: When Does Mission Matter?. *Administration & Society*, 43(1): 22-44.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Using MBTI,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 Performance, and Conflict Handling

Youngmi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using Myers-Brigs Type Indicator (MBTI), student performa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styles of handling conflict. Personality type can influence student performance as well as the way they deal with their conflicts. However, this study is convinced that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zoomed in on probing students in public administration. Hence, this research mainly addresses the issu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 and the styles of conflict handling of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MBTI test is that there are more extravert (E) type (68.0%) students than the introvert (I) type; more sensing (S) type (63.3%) than the intuitive (N); more thinking (T) type (55.8%) than feeling (F); more judging (J) type (63.3%) than the perceiving (P). Second, in terms of psychological funct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 performa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nor is there difference in terms of combination of the direction of energy and the attitude for dealing with the outer world. Third, in terms of psychological functions, ST (sensing plus thinking) is relatively associated with competing, SF (sensing plus feeling) with accommodating, NF (intuition and feeling) with collaborating, and NT (intuition plus thinking) with avoiding. In terms of the attitude of outer and inner world, EJ (extraversion plus judging) is relatively related to competing, IP (introversion plus perceiving) and IJ (introversion plus judging) to avoiding, and EP (extraversion plus perceiving) to accommodating. Diagnosing personality can differentiate the styles students use to deal with their conflic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which can help them to handle conflicts.

【Keywords: MBTI, Personality Type, Student Performance, Conflict Handling】